

## 두 번 반의 안과 밖

이윤이 작가의 <두 번 반 매어진>은 다섯 편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영상에 담긴 이야기와 이미지들은 일정한 방식에 의해 전개되지 않는다. 파편적이고 돌발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들은 반복과 나열을 통해 서로 뒤섞인 채 조화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한 편의 영상에 담긴 날개의 기억들, 그것들은 마치 격식이 없는 퀼트 구조와도 같이 각각의 무늬와 색을 가진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날개의 기억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주고받으며 작품의 전체를 이룬다. 이렇듯 이윤이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사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녀의 내부를 자극하는 외부의 대상들 즉, 피아노, 파란 드레스, 나이프, 스푼, 포크, 영주권, 벤자민 나무 등등의 구체적인 상관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그녀가 필연적으로 요청한 내부의 사건 혹은 외부로부터 가져왔거나 변형 확장한 이야기들을 통해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그녀만의 독특한 퀼트를 보여준다. 그것은 작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들이 경험했던 혹은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들로 친근하지만 낯설게 다가온다.

### 1

#### 독수리 레슨기 -Meet me at the Eagle-

소녀는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더러운 손을 가진 까마귀 여자이고, 까마귀 여자에게 이야기를 중용하는 왕이며, 윤이 이-로 불리는 작가 이윤이이기도 하고, 발레리나의 꿈이 좌절된 한 여자이기도하다. 이 여러 개의 가면들은 손이 더럽다는 이유로 피아노 선생에게 손등을 얻어맞고 피아노 부스를 뛰쳐나가던 순간 얻게 된 것들이다. 그것은 모두 그녀의 것이지만, ‘이야기를 따라 떠나보자’, ‘말해봐봐, 우리가 그걸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다. 소녀는 거대한 오르간 앞에서, 독수리 동상 앞에서 모든 가면들을 벗고 자신과 대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녀는 이제 고장 난 아코디언도, 하모니움을 괴롭히는, 왕의 망토를 두른 여자도 아니며, 링거 맞는 발레리나도, 피아노 부스를 뛰쳐나가던 까마귀도 아니다. 공포에 가까운 거대한 오르간을 바라보며, ‘나는 그저 한 쌍의 손만 더 필요한 건지도 몰라/그러니, 악기를 배우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청동의 독수리 동상 앞에서 시간을 배우게 될 것이다.

까마귀 여자가 오르간을 바라보며 박자에 맞춰 춤을 춘다. 좋은 스텝이다.

### 2

#### 파란 대륙을 횡단하는 쇠조각들 -Knife, Spoon, Fork-

파란 드레스.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유일한 너만의 대륙. 그러나 너조차도 알 수 없는, 가본 적 없는 파란 대륙. '확실하지 않아 내가 그걸 정말로 기억하는 걸까' 그러나 너의 생일날과 첫 데이트와 대칭을 이루지 않던, 어느 한쪽이 항상 지배적이던, 도려내고 싶은 기억 속에서 한동안 너를 사로잡았던 파란 대륙. '기억이나/어쩌면 사진에서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어쩌면, 어쩌면이라고 말하는 너의 파란 드레스 속에는 나이프와 스푼과 포크가 숨겨져 있다. 나이프는 너의 목을 조를 것이고, 스푼은 속죄일 다음 날의 낯섦과 새로움을 동시에 보여줄 것이며, 포크는 홀로 춤추는 너에게 구름아래에서, 현재에 머무르며, 돌처럼 웃으라고 말할 것이다. 너의 파란 드레스, 너의 파란 대륙을 두 개의 커다란 렌즈를 통해 조금씩 다가설 수 있을 때까지. 네가 품고 있는 무서운 나이프가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네 입 속의 스푼이 감미로운 병어리가 될 때까지. 네 오른편의 포크가 왼편의 나이프와 스푼을 조용히 안내할 때까지.

마야라는 이름의 과제  
-Maya (not that)-

마야,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네가 알게 될 그것. 세계수의 꼭대기에는 다섯 명의 젊은이가 있다. 한 명의 젊은이는 곡을 연주하고 네 명의 젊은이들은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회전하며 성수의 꼭대기에서 차례로 뛰어내리지. 마야, 그녀의 입 속의 푸른 열매는 누구의 씨앗일까. 머리에 흰 꽃장식을 단 마야는 배를 타고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두 개의 방과 하나의 거실과 여러 개의 인형이 있는 멕시코 시티. 그녀의 아파트에서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를 읽어주는 여자는 누구이고, 붉은 슬립차림의 기다란 코를 가진 가면의 여자, 춤추는 여자는 누구일까. 마야,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시작도 끝도 아닌 곳에서 만나게 될 회색 머리칼의 남자. 그녀의 임신한 배를 잔인하게 찌르는 그 남자와 머리 둘 달린 수천 마리의 새들과 그들을 향해 펼쳐든 우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으로 물속에 잠겨 흔들렸을 여자,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를 통해 보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환영일까, 실재일까.

마야,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그것, 혹은 네가 영원히 모르게 될 그것.

벤자민을 위한 기도  
-Wetland, Greencard, Trio-

당신은 이제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영주권이 없는 당신의 연인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상대도, 당신의 마른 등을 다정히 쓸어줄 상대도 없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로 한다. 당신은 갑작스런 이별 앞에 놓여있다. '내가 울까요? 아니에요. 노여워서 인가요?, 아님 우스꽝스러워서?' 당신은 연인과 함께 보낸 삼년동안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벤자민 나무를 바라본다. 연인이 떠나고 나면, 당신은 그 나무를 죽여버리겠노라고, 모든 잎과 가지들을 잘라버리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러나 당신은 머리에 뿔을 달고 삼년이라는 시간을 벤자민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다. 당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질 때, 당신은 이미 벤자민 나무를 숲 속에 옮겨 심고 있다. '나의 친구들, 그들 모두 내게 물어보겠죠/우리가 함께 기르던 그 나무는 어딜 갔냐고,' 당신은 이제 곧, 당신의

연인과 함께 했던 집의 복도를 기어서 쓸쓸히 퇴장하겠지만, 뉴저지의 축축한 숲 속에서 벤자민 나무 한 그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half

회전하는 마칭밴드  
-The Secular Trinity (Boat/Port/Goat)-

여기 한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일수도 있고,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와 당신일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랑이야기.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항구와 배. 부두의 이별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는 여자와 뱃고동 소리와 함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가 있었을 것이다.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사무치게 그림다, 조금도 그림지 않다. 제자리를 맴돌며 수없이 두드렸을 북소리를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떠나고, 후회하고, 맞이하고, 기뻐하고, 또다시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이것은 흔한 사랑이야기이다. 회전문을 끝없이 도는 남자와 항구에서 끝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여자. 행진이 없는 마칭밴드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고, 나의 오래된 이야기이다.

황병승 (시인)

1970년 서울 출생. 서울예대 문창과와 추계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문예창작 대학원 수료. 2003년 계간 『파라21』로 등단하였고 시집으로 『여장남자 시코쿠』, 『트랙과 들판의 별』, 『육체쇼와 전집』이 있다. 박인환문학상(2010), 미당문학상(2013)을 수상했다.

## Two and a half of inside and outside

Yi Yunyi's solo exhibition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presents five of her mesmerizing video works, filled with stories and a diverse range of images. However, the components of the exhibition do not necessarily share identical narratives. The fragmented but provoking stories and disparate images that the artist presents are harmonized through repetition and the act of recitation. In other words, each memory contained within each video is represented by the quilting together of corresponding pieces with their own colors and patterns; these pieces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and subsequently constitute an entity. There are various symbolic objects on display throughout her exhibition, namely a piano, a blue dress, a knife, a spoon, a fork, a green card, and a Benjamin tree. These objects are concrete yet tangible elements that reference Yi Yunyi's internal concerns. In addition, the artist reveals these idiosyncratic quilts through fabricated and expanded stories transported inside from the outside world, or through private happenings that she herself has brought to bear. These stories of hers, apart from reflecting her own private histories, represent fairytales that one may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1

### A Journal of the Lesson with an Eagle - Meet me at the Eagle -

The girl wears multiple masks. She is a raven with dirty hands. She then becomes a king who begs for stories from the raven woman. She is in fact an artist, called Yi Yunyi, whose early wishful dreams of being a ballerina failed. The masks that she wears were given to her when she left the piano booth after her piano teacher slapped her on the hand. Even though everything might belong to her, at this particular moment she verbalizes phrases such as 'Let stories take us on a trip' or 'Tell me. We will make it', and nothing turns out to be of her own possession. She will soon confront a gigantic organ, freed from the masks she had previously worn. She no longer serves to be the broken accordion, the woman with the king's cape who teases the harmonium, the ballerina being connected to an IV, nor the raven that flees from the piano booth. Staring at the gigantic and intimidating organ, she might have thought, 'Maybe I just need another pair of hands. / Thus, learning an instrument is better late than never'. She will now learn during her time in front of the bronze statue of an eagle. Looking at the organ and keeping time with the music, the raven woman dances her swaying steps. They are decent steps.

2

### Pieces of Iron Sailing over the Blue Continent - Knife, Spoon, Fork -

The blue dress. Your own island that no one else can reach. However, again, the blue space that you neither know nor have ever experienced. 'Not really sure whether I can recall it.' However, the blue island that once haunted you with unforgettable, dominating, asymmetrical memories, when you did not draw any links between the memories of your birthday and our first date. 'I remember it. Perhaps because I saw pictures of it.' Perhaps. Your blue dress conceals a knife, a spoon and a fork. The knife will choke you and the spoon will reveal the awkwardness and the freshness after the Day of

Atonement. The fork under the clouds, remaining in the present, will tell you when you are dancing and laugh like the rocks. Your blue dress, your Blue Island. Until they become approachable through your gigantic lenses. Until the scary knife that you are armed with is gently tamed. Until the spoon in your mouth becomes a kind dumb. Until the fork on your right silently guides the knife and the spoon on your left onto its own path.

A task called as Maya  
- Maya (not that) -

Maya, not that. But it is something you will know at the end. There are five young men on the top of the world tree. One plays a song with an instrument and the other four, spinning round from North to South, start to jump from the crown of the world tree. Maya, whose seeds bore the fruits in your mouth? To where does Maya, with a white flowery ornament, float? Mexico City with two rooms, one living room, and many dolls. Who reads the poem *Prologue for a Flower*, by Kim Chunsu? Who is the dancing woman with a long nose in her red slippers? Maya, at the moment one calls her name you may encounter an old man with long and thin grey hair in the middle of the way. Who is the man who harshly stabs her pregnant abdomen? What are the thousands of birds with two heads? And what is the umbrella unfolding towards them? What does all this mean? Who is the woman whose being was no more than a mere gesture until one spoke her name? Who is this woman? Was everything I saw through her an illusion or a reality?

A Prayer for the Benjamin  
- Wetland, Greencard, Trio -

So now you do not have anybody to talk to. Your boyfriend, who doesn't have a green card, has to go to his home country. There is nobody left to listen to your whining and complaining, or to gently rub your forsaken back. So now you rather decide to have a monologue. You confront a sudden farewell. 'Would I cry? Maybe not. Is it coming from my anger? From hilarity?' You look at the Benjamin tree that carries the three-year history of you and your boyfriend. You promise yourself you will kill the tree and cut all the branches after your boyfriend is gone. However, you, with horns around your head, ramble around the Benjamin tree for three years. As your voice becomes cold, you realize yourself that you are replanting the Benjamin tree in the ground of a forest. My friends, they will all ask me, 'where is the tree you and your boyfriend used to grow?' Even if soon you relinquish your hold on the house in which you and your boyfriend stayed, the Benjamin tree still awaits you in the damp forest in New Jersey.

half

Revolving Marching band  
- The Secular Trinity (Boat/Port/Goat) -

Here are a man and a woman. They may be the people who surround us, or they may turn out to be you and me. This is a love story. A man and a woman, and a dock and a ship. At the dock there was a

farewell. Between the woman who stares at the sea and the man who forgets as soon as he turns away. He loves you, or loves you not. He hates you, or hates you not. You are missed so much, or not missed at all. You may recall the drumming sounds that lingered on. Leaving, regretting, gladly accepting, delightful, tearing up and again, leaving is the story. This is a cheap love story. This is about the man who keeps orbiting around the revolving door and the woman who endlessly hovers at the dock. The story of the marching band that never marches. This is your story and an old story of mine.

Hwang Byung-seung (Poet)

Hwang Byung-seung was born in Seoul in 1970. He debuted in 2003 by publishing five poems including "Primary Doctor h" in *Para 21*. He has published three poetry collections: *Sikoku*, *The Man Dressed as Woman* and *Track, the Star of the Field* and *A Body Show and The Complete Works*. He was awarded the Park In-hwan Literature Award (2010) and the Midang Literature Award (2013).